

## 에스파, 미국 최대 추수감사절 축제서 공연

K팝 걸그룹 '에스파(aespa)'가 미국 최대 규모의 추수감사절 축제 'Macy's Thanksgiving Day Parade' (메이시스 펫스기빙 데이 퍼레이드)에 참석한다.

2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에스파는 오는 25일 뉴욕에서 펼쳐지는 '메이시스 생스기빙 데이 퍼레이드'에서 K팝 걸그룹 최초로 공연한다.



▲ 에스파. 사진=SM엔터테인먼트

올해로 95회째를 맞이한 '메이시스 생스기빙 데이 퍼레이드'는 미국 유명 백화점 브랜드 메이시스가 주최하는 대규모 추수감사절 축제다. 매년 풍성한 볼거리를 선사해 현지의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2019년 NCT 127이 참여한 바 있다.

메이시스는 축제 퍼포머 라인업 소개에서 에스파에 대해 "카리나, 원더, 지젤, 닉닉 4명의 멤버들로

구성된 가장 대담한 K팝 신인 걸그룹이다. 이들은 각자 가장 세계에 살고 있는 아바타를 가지고 있다는 SF 콘셉트로, 데뷔곡 '블랙 맘바' 뮤직비디오가 유튜브 조회수 1억뷰를 돌파했다"라고 설명했다.

메이시스는 "이들의 데뷔 앨범 '새비지(Savage)'는 빌보드 200 차트에서 20위로 진입, K팝 걸그룹 첫 앨범 사상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올해 축제에는 에스파 외에도 등 미국 인기 드라마 '글리'의 대련 크리스. 디즈니 애니메이션 '소울(Soul)' OST 작곡가 존 바티스트(John Battiste) 등 세계적인 스타들이 참석한다. 화려하게 꾸며진 퍼레이드 카를 타고 맨해튼 센트럴 파크부터 해럴드 스퀸까지 행진하는 초대형 퍼레이드를 펼친다. 이날 퍼레이드 현장은 미국 NBC 방송을 통해 생중계된다.

## 블랙핑크 “기후 변화 대응 지금 행동해야”

걸그룹 블랙핑크가 전 세계가 겪는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변화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3일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블랙핑크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 협약 당사국총회' (COP26) 정상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영상 메시지를 전달했다.

멤버 지수는 "우리 모두가 함께하지 않으면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며 회의에 참석한 정상들을 향해 "우리의 지구를 지금, 또 앞으로도 계속 지킬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결정을 내려 달라."고 말했다.

리사는 "우리가 두려워하던 일이 이미 일어나고 있고 심각한 변화가 지구를 아프게 하고 있다."며 기후 변화의 위험을 경고했고 제니는 "보다 나은 내 일을 위해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블랙핑크. 사진=YG엔터테인먼트

YG 측은 블랙핑크의 이런 노력에 맞춰 소속사 차원에서도 환경 보호를 위한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YG 측은 "앨범이나 MD(팬 상품) 제작 시 비닐보다 종이를 최대한 활용한 디자인을 고려 중이며 더 나아가 옥수수 전분 등으로 만든 생분해성 플라스틱 샘플을 받아 확인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 'DMZ 도보 횡단' 다룬 영화, 하와이 국제영화제서 개봉



▲ 하와이 국제영화제 '크로싱즈' 영화 소개. 사진=영화제 홈페이지

여성 인권운동가들이 남북한 비무장지대(DMZ)를 걸어서 넘은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한 영화 '크로싱즈(CROSSINGS)'가 제41회 하와이 국제영화제에서 처음으로 선보인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제여성평화단체 '위민 크로스 DMZ'는 2015년 5월 북한을 거쳐 파주 도라산 출입사무소까지 DMZ를 걸어서 건너는 행사를 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 메이리드 맥과이어(1976년)와 레이마 그보위(2011년)를 비롯해 국제 여성운동가 글로리아 스타이너, 인권운동가 크리스틴 안 등 30여 명이 참가했다.

미국 입양 한인 데안 보사이 리엠(한국명 차정희) 감독이 만든 '크로싱'은 크리스틴 안을 중심으로 여성 인권운동가들의 DMZ 도보 횡단을 조명했다. 수천 명의 북한 여성과 함께 행진하는 장면, DMZ 도보 횡단을 위해 남북한 정부를 오가는 노력, 평화행진 운동에서 만난 소중한 인연,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를 위해 분투하는 여성들의 절실한 모습 등을 담고 있다.

이 영화는 하와이 인권위원회(HCH)의 '영화를 통해 생각하기' (FFT) 운동의 하나로 제작됐다.

크로싱즈는 오는 15일부터 28일까지 이 영화제 웹페이지(hiff.org)에서 관람할 수 있다. 오프라인으로는 13일 오후 2시 콘솔리레이티드 카힐라 극장에서 상영된다. 상영 뒤 감독과의 대화도 이어진다. 리엠 감독은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다큐멘터리 '차정희, 그 수수께끼를 찾아서'로 2010년 제28회 샌프란시스코 국제아시안·아메리칸 영화제에서 관객상을 받았다.

지난 4일 개막한 이 영화제는 오는 28일까지 열린다.

## 백천 운명철학원

뉴욕, 맨하탄에서 20년 만에 Laguna Woods, Irvine으로 이전!  
한국이 놓은 세계적인 예언가 백천선생



백천 선생(白泉先生)

한국역술인협회 미주지구 회장  
국제 예언가협회 이사장  
1976. 한국역술인협회 정회원  
1977. 대한 경심연합회 중앙감찰  
1986. 세계 예언자 대회 동경  
1989. 국제 예언자 대회 총동  
2008. 한국 역술인협회 부회장  
2008. 제20회 서울 국제 역학대회

신재사궁초재이방택이아상  
재수주합혼사향일름호

영적과 학술을 겸비한 백천선생 감평

애정운/부부운/자녀운/직업운/사업운/재물운/  
학업운/주택구입시기/이사운/집매매운/  
풍수지리/방향/건강운/대인관계/동업운/  
관제/소송/삼재풀이/방책예방/  
\*부부 특별 상담 (숫자운)

\*코로나 사태로 당분간 전화상담만 받습니다.



909-347-0505  
213-500-6363

2381 Via Mariposa W #2h, Laguna Woods, CA 92637

숫자퍼즐 정답								
5	8	1	6	9	2	7	4	3
9	7	3	1	8	4	5	2	6
4	6	2	3	5	7	9	8	1
1	3	4	5	2	6	8	9	7
8	5	9	7	4	3	6	1	2
6	2	7	8	1	9	3	5	4
7	1	8	2	6	5	4	3	9
3	4	5	9	7	1	2	6	8
2	9	6	4	3	8	1	7	5